| 현불 논단 |

새해 '불국정토운동' 펼치자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기해년 웅비를 맞이한 한국불교
올해를 불국정토운동 원년 삼길

불국정토, 번뇌 굴레 벗어난 세상
불자만의 세상 발원, 여법치 않아
모든 중생 행복 · 안락한 곳 '정토'

민주사회 만드는 시민사회운동과
자리이타의 불국정토 이념 맞닿아
이는 부처님 전법교화행과도 유사
장기적으로 불교정토운동 실천을

한국불교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를 뒤로 하고 기해년의 웅비를 맞이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여러 가지 소원과 희망을 그려보지만, 한국불교가 올해를 불국정토운동의 원년으로 삼았으면 한다. 개항기 이후 이웃종교가 선교에 전념해온 데 비하여 한국불교는 포교에 적극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야 다양할 수 있지만, 한국불교는 해방 이후 비구와 대처 간 분규를 겪으면서 사회운동을 이끌 동력이 부족했던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불교 내부의 혼란이 컸기에 외부 사회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 이 시기 한국 기독교는 서구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 하에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불국정토운동을 펼치기 위해선 불국정토에 대한 여법(如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불국정토(佛國淨土)는 부처님이 사는, 번뇌의 굴레를 벗어난 아주 깨끗한 세상이다. 혹자는 불국정토를 불자로만 가득한 세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불국정토운동은 여법하지 않다. 그런 운동이라면 모든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개신교의 성시화(聖市化) 운동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성시에서는 타종교인은 살 수가 없었다. 장 칼뱅(Jean Calvin)이 지배한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타종교를 가진 자는 사형에 처했다. 이에 반하여 불국정토는 모든 중생이 이익되고 안락하고 행복한 땅이다.

이런 불국정토운동은 오늘날에는 시민사회운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 모든 중생이 이익되고 안락하고 행복한 땅을 만들자는 '불국정토'의 이념과 시민 각자가 권리의식을 자각하고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가 행복한 민주사회를 만들려는 '시민사회운동'의 이념은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의 운동이 한국불교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5년 제창되었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그러했다. 당시의 선언문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나 실천이 아닌 것이며, 특정계급 및 계층의 이익이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실천적 종교운동이자 시민사회운동이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성격은 해방 직후 불교혁신운동이나 불교정화운동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후자의 운동들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자기정화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넘어서는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이었다.

오늘날 불국정토운동은 특정 집단의 이익과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 시민사회운동이자 실천적 종교운동이어야 한다. 그 길은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 걸었던 전법교화의 길과 다르지 않다.

이제 한국불교는 20여 년 전과는 달리 대내외적으로 안정과 역량을 갖추었다. 물론 출가 승려와 재가신도의 수가 모두 감소하는 어려운 형국도 존재한다. 그럴수록 단기 · 일시적이 아닌 장기 ·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교 · 사회적 운동이 바로 불국정토운동이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에서 손님을 모으듯이 신도를 모으는 포교방법이 아닌 모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전법교화를 고민하는 한국불교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쪼록 기해년 한 해가 불국정토운동의 원년이 되기를 서원한다.

社 說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결성에 부쳐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가 전격적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불자들을 모으는 작업에 들어갔다. 2월 27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창립을 시작으로 나주, 전북, 대전 등에서 연합불자회 결성이 추진된다.

그동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기관 종사자들은 생활의 어려움이 있었다. 가족들과 떨어져 나홀로 이주를 택한 직원들이 절반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자 종사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이 바로 신행생활이었다.

하지만 지방이전으로 기존에 있던 신행공간이나 시스템마저 송두리째 바뀐 상황이었다. 처음으로 연합불자회가 구성되는 원주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기존에 불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도 원주 이전으로 활동이 위축되어 있었다.

중앙신도회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각 지역별 교구신도회 구축을 완비했다. 향후 교구신도회의 지역 신행 중심체로 공공기관 연합불자회를 연계하고, 지역 사찰을 신행중심도량으로 함께 배정한다면 이들의 신행활동은 배가 될 것이다.

또 직장직능 단체들을 함께 연계한다면 그동안 소극적이던 친불교 성향의 직원들이 불자로, 이후에는 신도로 활동하게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불교는 그동안 이웃종교에 비해 신도 조직화에서 뒤쳐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종교색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이웃종교인들에 비해 불자들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활동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연합불자회를 통해 상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사회적 역량을 높이는 일이 남았다. 이에 대한 지역사찰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도 필요한 때다.

남북교류 신호탄, 불교가 모범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면서 남북교류 재개를 기대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한국불교계가 북한불교와의 교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랫동안 남북불교 교류를 대표해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를 비롯해 국제구호단체 한국JTS까지, 최근에는 전통종단인 태고종도 금강산 유점사 복원 의지를 다지며 남북불교 교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남북불교계는 지난 2015년을 끝으로 사실상 교류가 단절됐다. 조계종은 그해 10월 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 남북합동법회, 천태종은 11월 영통사 복원 10주년 남북합동법회가 마지막 남북공동행사였다. 이후 중국 심양에서 남북불교 지도자들이 만나거나 새해 서신을 주고받긴 했으나 함께 행사를 개최할 순 없었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재 정책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북한 불교계 역시 한국불교계와의 교류 단절을 면치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진 남북 해빙무드에 이어 꾸준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며 남북교류 재개의 싹이 다시 움트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불교계가 남북교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길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교계는 그동안 적은 인프라로 이웃종교보다 월등한 대북교류 실적을 쌓았다. 문체부가 최근 펴낸 〈2018 한국의 종교현황〉에도 이 같은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될 남북교류에 한국불교가 선봉장이 되길 기대한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종이도 생명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하루에 한 번쯤 인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 책을 읽고, 신문을 읽으니 종이 없이 사는 하루를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집에서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하루에도 몇 장씩 그림을 그리고, 관심 있는 곤충이나 희귀 해양 생물을 검색해 수시로 인쇄한다.

그러니 인쇄용지가 항상 묶음으로 준비되어 있다. 종이가 지천으로 있다 보니 귀한 줄을 몰랐다. 그래서 달력 뒷면이나 이면지 사용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종이나 휴지를 낭비한다 싶을 때면 어김없이 "종이도 생명이야. 나무였어"하고 말해준다. 생명을 워낙 아끼는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면 행동을 잘 수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가 나무라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 우리는 종이를 쓰면서 나무를 생각하지 못한다. 무심한 우리들의 종이 사용으로 지구의 숲 절반 이상이 종이가 되어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 이쯤 되면 '숲을 찢어 종이를 쓴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소비하는 종이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대서양을 비행기로 왕복할 때 발생하는 탄소량과 같다. 이뿐 아니다. 종이 한 장을 만들려면 머그컵 한 잔의 물이 필요하며 책 한 권을 만들려면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물이 필요하다. 또한 단단한 나무를 잘게 잘라 펄프로 만들고 빳빳한 종이로 만드는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유로 제지 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에 이어 네 번째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으로 꼽힌다.

이렇게 숲을 훼손하고 많은 물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생산된 사무용지들은 전 세계에 있는 3억 대에 육박하는 프린터에서 사용되며 인쇄용지 소비량은 지난 20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복사지 사용량 29만t이고 그 중 45%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휴지통에 버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종이가 금처럼 귀하니 지금 바로 종이 절약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아 '지금(now, 紙金)하자'는 종이 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종이 절약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종이 절약을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권장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프린터기 옆에 붙여두고 챙겨봐야 할 항목들로는 인쇄 전 오탈자 확인으로 재인쇄 막기, 꼭 인쇄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양면 인쇄 설정하기 등이다. 또한 휴지 대신 손수건이나 걸레 사용하기, 청구서 메일로 받기, 재생 종이 사용하기, 이면지 공책 만들어 쓰기, 종이컵 대신 개인 컵 사용하기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종이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인류를 무지에서 구원한 수많은 지식의 보고와 역사는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종이 위에 전승되어온 수많은 정보와 진리의 말씀 덕에 이만큼 진화해 왔다. 인류의 진화와 발전에 기여해 온 종이를 지구의 허파를 갉아 먹는 주범으로 전락시키는 건 종이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종이 절약으로 종이에 대한 예의를 다할 가장 좋은 때, 지금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개천사
• 주 소 : 경북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산54-2
• 주 지 : 법광 (속명 : 송윤용)
• 승 번 : 2060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수행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회 원 일 동

새로운 방생 명소
해룡일출大관음사
해변 힐링 마을
(한국불교대학 해변절)

❶ 워크샵, 명상힐링캠프 가능한 최신식 시설
❷ 공양, 커피, 음료수(카페테리아), 불교용품점, 서점
❸ 산중절인 무일선원과 연계가능
❹ 방생의 최적지 - 감포몽돌해변
❺ 갤러리, 법회장소 등 활용가능
❻ 10대 제자사리, 석경, 대형고려16나한 고구려불, 건칠불 봉안
❼ 템플스테이 - 개인 및 단체이용

해룡일출大관음사 (한국불교대학 해변절)
경북 경주시 동해안로 1740 T. 054-745-9229



※ B.U.D 山海세계명상센터의 해변절로서 여러시설을 갖추고 있음.